취업모의 심리적 문제와 양육태도 및 유아의 적응

이 완 정*(인하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과 조교수)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취업모의 심리적 문제와 양육태도 및 이에 따른 자녀의 적응 문제를 분석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를 위해 인천지역에서 유의표집된 보육시설에서 취업모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와 양육태도를 조사하였으며, 보육시설의 담임교사에게 유아의 적응에 대한 설문에 응답해주도록 요청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439부였는데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연령대로는 30대가 54%, 40대가 23.7%로 가장 많았고, 학력수준은 고졸이 51.7%, 초급대 졸업 이상이 25.5%였으며, 월소득 수준은 150만원 미만이 15%, 300만원 미만이 39%, 300만원 이상이 23.9%였다. 그리고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전문 · 관리직이 10%, 사무직 및 자영업이 33.3%, 피고용 기능 · 단순노무직이 18.7%였다.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유아의 평균 월령은 54개월이었고, 성별분포는 남아가 54.8%, 여아가 44.6%였다.

자료의 분석결과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취업모의 심리적 문제($F = 9.354$, $p<.001$)와 온정 · 수용적 양육태도($F = 3.47$, $p<.05$) 및 거부 · 제재적 양육태도($F = 3.34$, $p<.05$)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취업모의 심리적 문제와 온정 · 수용적 양육태도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r =-.176$, $p<05$)이, 거부 · 제재적 양육태도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r =3.63$, $p<001$)이 있었다. 유아기 자녀의 적응은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남아보다는 여아가($t = -4.684$, $p<.001$),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F = 6.44$, $p<.001$) 보육시설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소득수준이나 취업모의 심리적 문제는 유아의 적응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취업모의 온정 · 수용적 양육태도는 유아의 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r = .193$, $p<.001$)이, 거부 · 제재적 양육태도는 유아의 적응과 유의한 부적 상관($r = -.113$, $p<.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가정의 소득수준과 취업모의 심리적 문제는 유아기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관계가 있었고, 어머니의 온종 · 수용적 양육태도는 유아기 자녀의 적응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기 자녀의 적응에 중요한 변수임을 폭넓은 직업군과 소득수준을 망라한 취업모 집단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입증하였고,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심리적 문제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는 의의가 있다.